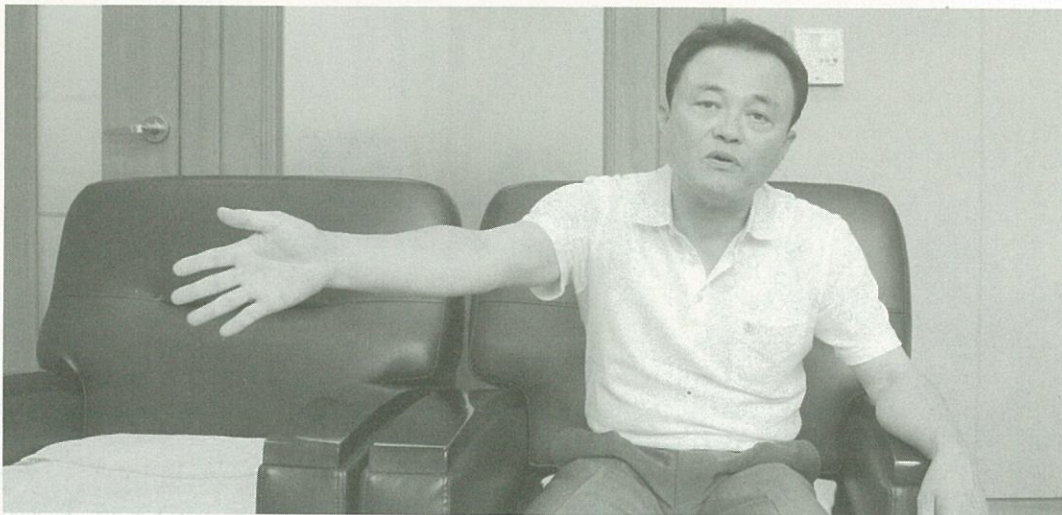


“치즈산업 활성화 위해 전국단위 집유일원화돼야”



심승만 임실치즈농협 전무

“국내 낙농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즈산업이 활성화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집유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실치즈농협 심승만 전무는 단위축협에서 근무하다 2005년 임실치즈농협으로 부임해 10년여간 임실치즈산업을 이끌고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10년 공장증설로 일일생산량이 70톤으로 늘어났는데 구제역이 발생해 치즈원료유(잉여원유)를 공급받지 못해 제대로 치즈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

치즈산업활성화는 원료 원유의 안정적 공급돼야

그래서 심 전무는 치즈산업 활성화 방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치즈산업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낙농산업이 식량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치즈 가공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절실합니다. 항상 치즈공장에서 치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유를 연중공급해 시장을 지키고 산업을 유지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즈’ 하면 입실이 떠오를 정도로 입실은 현재 국내에서 치즈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심 전무는 이러한 입실치즈만의 경쟁력에 대해 “입실치즈는 역사와 전통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실치즈는 초창기부터 치즈 기술 전수를 도제방식으로 이뤄져 기술자(마이스터)의 손맛을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국내에서 치즈를 생산했듯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치즈를 생산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요구 충족 노력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도 원료유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입실치즈농협의 전략마케팅을 묻는 질문

에 심 전무는 쉽게 말을 꺼지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선진국과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가격편차가 큰 경우에는 전략전술마케팅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세운 것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닌듯했다. “머릴 짜내 아이디어 신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이를 생산할 설비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다른제품들도 그렇겠지만 신제품을 만들어 생산하려면 설비가 새롭게 필요한데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이에 심 전무는 아이디어를 내어 목장형 유가공농가들과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목장형 유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설비를 다양화해 제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입실치즈농협은 목장형유가공농가와 협의해 입실치즈농협이 필요로 하는 치즈를 농가들이 생산하면 구매해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입실치즈농협 유가공공장 내부를 설명하고 있는 직원



▲ 연간 13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임실치즈판매장
 ◀ 임실치즈농협 제품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김동수 마케팅과장

임실의 경우 목장형유가공농가들의 치즈설비는 거의 같아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농가들끼리 경쟁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실치즈농협은 다품종소량생산의 모델로 목장형유가공 농가들과 계획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임실치즈농협에서는 치즈 생산에만 구애되지 않고 치즈를 활용한 2차가공품에도 눈을 돌려 치즈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치즈돈카스, 치즈스틱 등 치즈가공품을 만들어 치즈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단위 점유일원화돼야
 수급불균형 해소될 듯**

심 전무는 “사견인데 국내 낙농산업과 치

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점유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회의 30%대의 시장점유율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단위 점유일원화가 되면 수급조절이 용이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유가 남을 때는 가공으로 이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유로 사용해 수급불균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농선진국과 싸워야하는 만큼 국내 낙농산업을 이끄는 정부와 업체, 농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 월간낙농육우 편집실〉